

노시로 칠석 '천공의 불야성'

‘노시로 칠석’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손으로 칠한 선명한 색의 ‘성곽형 등롱’이 하늘에 떠오르는 모습입니다. 성곽형 등롱은 가장 큰 것으로 무게는 약 25 톤이 나가고, 높이는 24 미터가 넘습니다. 이 축제는 ‘천공의 불야성’이라고 불리며, 정식 영문명은 “[Lantern Castles in the Sky](#)”(하늘에 떠있는 성곽형 등롱)이지만, 보다 정확하게는 ‘하늘에 떠있는 잠들지 않는 성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확실히 등롱의 선명한 빛은 노시로에서 밤의 어둠을 지워버리기 때문입니다.

나고야성 모양의 독특한 등롱은 약 2 세기 전 에도시대(1603~1867 년) 후기에 열린 노시로 칠석 축제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. 최근에는 송전선에 닿지 않도록 등롱 높이가 약 8 미터로 제한되었지만, 이후 송전선이 땅속에 매설되면서 2013 년에는 17.6m 의 등롱 ‘가로쿠(嘉六)’가 등장했습니다. 이는 메이지시대(1868~1912 년) 사진에 찍혀 있는 오리지널 나고야성 등롱을 모델로 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. 2014 년에는 과거 히야마성 성주였던 안도 지카스에(1539~1587 년)의 이름을 따 ‘지카스에(愛季)’라는 이름이 붙은 24.1m 의 등롱이 처음 등장했습니다. 각각의 등롱 윗부분에 장식된 웅장한 샤치(호랑이 머리와 잉어 몸을 가진 상상 속의 생물)는 다채로운 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. 칠석은 7 월 7 일에 1년에 한 번만 만날 수 있는 두 신의 이야기에 얽힌 중국 유래의 축제입니다. ‘칠석’은 ‘칠일 저녁’을 의미하며, 오늘날 일본의 많은 지역에서는 7 월 7 일에 칠석을 기념하지만, 노시로에서는 지금도 음력에 맞추어 8 월 초순에 기념하고 있습니다.

축제는 8 월 3 일과 4 일에 개최되며, 메인 퍼레이드에는 악기 연주자, 무용수, 그리고 등롱을 끌고 가는 이 등 총 700 여 명이 참가합니다. 축제 견학은 무료이지만, 유료 좌석을 예약하면 운행 경로를 따라 더 가까운 거리에서 견학할 수 있습니다.